발행일: 2024.07.29.

수도권-비수도권 공연시장의 차이는?

*본 콘텐츠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공연일자 기준으로 2024.6.21.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해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국에는 많은 공연시설이 설치되게 되었으며, 특히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문화예술회관이 설치되며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23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연시설은 총 720개로 수도권에 326개 (45.3%), 비수도권에 394(54.7%)개로 비교적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연예술시장의 활성화 정도는 매우 다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수도권의 공연건수는 6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 왔지만, 비수도권은 30%대로 수도권의 거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공연횟수에 있어서도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공연은 70~8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공연을 볼수 있는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2022~2024년 수도권-비수도권 공연건수 비교



2022~2024년 수도권-비수도권 공연횟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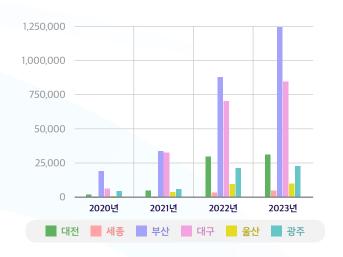


공연의 공급도 저조하지만, 수요 또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KOPIS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티켓판매수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공연건수나 횟수를 고려하더라도 비수도권의 티켓판매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비수도권에는 공연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보다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별로 공연에 대한 수요가 차이를 보이는데, 2022~2024년 비수도권 광역별 티켓예매수 비교를 보면 부산, 대구 등은 비교적 공연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세종과 울산은 낮은 편이다.









1

지역 공연예술 침체 원인

이러한 비수도권의 공연예술에 대한 저조한 공급과 수요 현황은 우리 지역 공연예술 시장이 매우 침체해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앞서 2022~2024년 수도권-비수도권 공연건수 비교와 2022~2024년 수도권-비수도권 공연횟수 비교에서 살펴본 우리 지역 공연예술시장에의 공급 저조는 지역 공연예술의 창작활동이 저조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에 공연예술단체나 공연예술인의 절대 수가 매우 부족해 창작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우며, 창작활동의 저조는 공연 건수의 저조로 이어진다.

1 문화 자본 취약

지역의 공연예술에 대한 저변이 미약한 것도 지역 공연예술시장의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연건수가 적음에 따라 지역주민이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연에 대한 취향도 형성되지 않으며 관심도 적어지게 된다. 공연예술, 특히 순수 공연예술 장르라 불리는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등은, 장기간의 문화취향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문화사회학자 부르디외가 말한 문화자본의 형성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공연예술장르에 노출되어야만 취향도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 중에 지역주민 중 공연예술에 관심이 생기는 이들이 생겨나면 지역의 관객층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관객층은 지역 공연예술을 받쳐주는 든든한 저변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저변이 매우 미약한 것이 문제이다. 지역에서 공연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공연예술에 대한 태도나 인식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공연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고 취향이 형성되지 못했다면 지역 내에 공연예술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지역에서 공연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전국 공연예술창제작 유통협력 생태계 구축사업'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창작된 양질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지역에도

제공되었지만, 장르에 따라 인기 편차가 심한 편이다. 수도권에서도 장르별 인기 편차는 있지만 지역은 더욱 심한데, 대중예술이나 뮤지컬, 아동극에 대한 인기는 높으나 순수 공연예술 장르에 대한 인기는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전국 공연예술창제작유통협력 생태계 구축사업'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창작된 양질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지역에도 제공되었지만, 장르에 따라 인기 편차가 심한 편이다. 수도권에서도 장르별 인기 편차는 있지만 지역은 더욱 심한데, 대중예술이나 뮤지컬, 아동극에 대한 인기는 높으나 순수 공연예술 장르에 대한 인기는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

2 발전 격차와 인구 이탈

이러한 지역의 공연예술 미약은 우리나라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에 따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디면서, 많은 지역주민의 지역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많은 지역주민, 특히 청년층의 이탈이 심화하면서 소멸 지역이라 불리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예술인들도 일자리를 찾아 지역에 정주하기보다 지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예술인들의 지역이탈은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연 장르의 특성상 매우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공급의 저조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계속 공연예술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지역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



2

정부의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 정책

이와 같이 지역 공연예술시장은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게 하도록,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펼쳐왔다.가장 큰 반향이 있었던 사업 중 하나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 가동률이 낮고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를 가졌던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에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공연예술단체 또한 공연일수 확보나 신작 개발 비용 지원, 역량 강화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의 창작력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공연예술단체만을 대상으로 국비 90억과 지방비 90억을 1:1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악, 전통, 무용, 연극 등 이른바 비인기 장르만을 지원하는데 단체당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의 공연예술계가 단시간 내에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속해서 지역 공연예술분야의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진행된다면, 조금씩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 격차가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소가

차 민 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주)크레디아 호암아트홀 공연기획팀, CJ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근무

- 전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전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과 초빙교수
- 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위